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와 인간



유병권

한옥(韓屋)과 도시건축정책

로한 많은 지자체도 정부와 협력하여 한옥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옥정책에 대해 국민은 기대와 함께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물량 위주의 보급에만 얽매인 것은 아닌지, 공급자 시각으로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전통문화보다 실용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옥정책이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도 해소해야겠지만 도시건축정책에서도 몇 가지 방향성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한옥은 우리의 전통사회의 모습처럼 어울림이 매우 중요하다. 한옥이 갖는 집합적 경관과 공동체적 특성을 생각하면 자연과 건축물, 건축물과 건축물 간의 조화가 중요한 계획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위치에 관계없이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완화하면 한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개별건축물보다 마을이나 지구 단위의 맥락을 존중하면서 도시계획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통마을은 경관과 한옥을 함께 가꿀 경관협정을 주민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

는 게 필요하다. 마을 단위로 전문토목경관 복원과 함께 한옥을 활성화하는 시범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옥의 보전과 육성정책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주변 및 농촌지역이 특히 그렇다. 한옥을 비롯 한 역사문화적 건축물은 관광자원이자 지역활성화를 위한 촉매역할을 하기에 좋은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한 옥과 마을, 길과 숲 같은 조경적 요소까지 보전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나 도시주변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한옥자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 지역 역시 전통경관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을 덜 받았으니 남은 한옥자원은 제대로 조사해서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꿔야 할 것이다.

셋째, 한옥과 같은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쇠퇴되고 있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나 전주 등 한옥자산을 체험관광을 위한 테마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좋은 정주환경으로 보존 육성하면서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

고, 역사성 보전이 필요한 고도(古都)의 경우에는 전통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도시재생자원으로 활용되는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옥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지, 요즘 생활양식에 맞게 고쳐 써야 하는지의 문제다. 전통적 한옥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한옥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은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제 는 보다 선진적인 주택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초적인 발상을 전통적 한옥에서 찾아야 한다.

요즘과 같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창조도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한옥을 갖는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를 살려서 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도시를 들여다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옥을 통해 우리 도시의 르네상스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국도해양부 도시정책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반드시 뿌리 뽑아야

소문으로만 나돌던 프로축구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 크다. 특히 프로축구 신생팀 광주 FC 소속의 골키퍼 A씨가 '러시엔캐시업 2011' 리그에서 5경기 가운데 4경기에 출전해 모두 11골을 상대팀에 허용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창원지검은 25일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한 뒤 스포츠복권에 거액의 돈을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등 선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외에 8명 이상의 선수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검찰은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승부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발본색원하되, 해당 선수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수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단, 감독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 브로커들이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구단 소속이거나 다른 선수에 비해

연봉이 적은 선수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프로축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자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기대한 축구팬들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한국 축구계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승부조작의 1차 책임은 분명 선수 자신에게 있다. 불법의 유혹이 있더라도 선수로서의 자제와 긍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다. 몇몇 선수의 처신 잘못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앓아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승부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발본색원하되, 해당 선수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수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단, 감독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 브로커들이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구단 소속이거나 다른 선수에 비해

사상 최고 가계 빚 800조 돌파 어찌할 건가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가계 빚 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6조 원이 늘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가구당 평균부채도 2007년 말 3842만 원에서 4611만 원으로 늘었다.

가계 빚이 최근 몇 년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조차 한국의 가계 빚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가 은행신업을 위기로 몰아갈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이미 가계 빚에 대해 경고를 울렸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 2월 중 대부업체·증권사·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 빌려 쓴 돈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문제는 가계 빚이 있던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1월, 올 1월과 3월 등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상됐다. 대출금리가 2%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18조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65%가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게 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빚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과도한 가계 빚이 초래한 제1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입증하고 있다. 능력 이상의 가계부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소비를 얼어붙게 해 경제를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초저금리에 편승한 주택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개인도 금리가 오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 함은 물론이다.

증고칼럼



지상

5월 광주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총장로 금남로 거리 곳곳을 가득 메웠던 광주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날이 바로 5월 21일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현실이 부처님 오신날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미 하루 전날 저녁, 즉 음력 4월 7일 저녁에 계엄군의 첫 발포 이후 형제자매를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내리치고 총으로 쏘 죽이는 극악무도한 공수부대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사월초파일 총장로 금남로 거리에서 10만 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여 전남도청에 도열해 있는 계엄군을 몰아내기 위해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중무장한 계엄군 간의 광활한 긴장관계가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한 순간에 깨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핏방아를 흘린 선혈이 금남로 거리를 물들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 설치해 놓은 봉축탑은 짓이겨지고 길거리의 아름다운 연등도 광주 시민들의 마음처럼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공동체적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만을 지켜내고자 자신의 목숨마저도 역사의 재단 앞에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면서 죽어간 이들 중에 조선대 대학생으로서

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해온 김동수 열사도 27일 새벽 4시 반 계엄군의 총탄에 스러져 갔습니다. 김동수 열사는 불자로서 못생명의 존귀함을 온몸으로 구현해 낸 자랑스런 보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 증심사에 주석하셨던 몇몇 스님들도 광주시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5월 광주의 고뇌와 아픔에 함께 동참한 아يا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런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아니 죽음으로써 참된 삶의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덕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5월 광주엔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비가 5월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는 비가 되고, 산자들의 부끄러움을 참회하는 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합니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기고



김은영

어번폴리, 도심 풍경을 바꾼다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만나고 부딪히는 일상이 가능한 도시라는 생각이다.

구도심을 벗어나면 광주 도박이라도 금세 길을 헤매 일 정도로 도시가 많이 확장되었지만 그래도 광주의 기억은 광주의 구도심, 옛 중심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광주에 옛 읍성터를 중심으로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해 '어번폴리'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어번폴리는 옛 전남도청 이전 이후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총장로 금남로 등 광주 구도심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싣고 도심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광주의 어번폴리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 기념비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전통적인 조형물과는 달리 그말로 생활형 폴리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의 폴리가 완공되면 험터나 스마트폰

총장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정표의 구실도 함으로써 만남의 장소로서, 오랫동안 광주에서 약속의 포인트였던 새로운 '우다방'으로도 활용될 것 같다.

지난해 12월 참여건축가들이 광주 옛 읍성터의 답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시민대토고회에 이어 5월 착공식을 갖고 오는 9월1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있다.

그 고개는 바로 광주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아닐까. 막연히 이름도 생소한 어번폴리라는 '또 하나의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광주에 어번폴리가 설치됨으로써 광주가 말 그대로 예술의 도시, 문화도시, 미래형 창조 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광주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그만큼 배가되리라 본다.

어번폴리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도시가 재생되는 해외의 성공사례를 보면 오는 9월에 드러나게 될 어번폴리 하나

하나가 기다려질 것 같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1980년대 미나마타병이라는 환경재앙이 닥치면서 지역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4년 모리히로 호소가 와 현의 지사는 '남는 것은 문화 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구마모토, 내일의 시나리오'를 제안 마을회관, 다리, 미술관, 버려진 건축물을 재생시키는 등 총 7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67개를 완성시켰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문화를 모토로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이루면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문화도시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문화도시 개조계획의 하나인 라빌레트 공원으로 마찬가지로. 1974년 이전에는 도살장과 우시장이 있었는데, 공원의 마당을 폴리로 조성하였다. 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800만 명으로 어번폴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광주의 폴리가 완공되는 9월이 오면, 날이 갈수록 숲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광주도심을 느리게 거니는 '도시의 산책자'들이 많아질 것 같다. 광주의 폴리가 완공되는 9월이 오면, 옛 읍성 터를 따라 거니는 발걸음도 찾아지고 그 풍경이 좋아 차를 멈추었다는 소곤거림도 자주 들릴 것만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글씨만 알면 외지 사람은 물론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새주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강진읍 서성리 62-2(새주소 강진읍 삼일로 55)'를 '강진읍 서성리 55번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하루라도 빨리 활용해야 한다. 현재 새주소를 활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젊은층들이다. 때문에 앞으로 노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새주소로 인한 대혼란이 볼 보듯 뻔하다. 이는 결국 배송지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주소 제도의 편리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바르게 알고 빨리 활용' 할수록 새주소 체계가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임영택·한진택배 강진영업소

새주소 빠른 정착 위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

2006년 4월에 입법화된 '새주소' 제도는 그동안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새주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새주소란 100여 년간 써왔던 땅 위주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의 주소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 이름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 방식'에 의한 주소이다. 도로명은 지역의 역사성, 지역적 특성 등을 참고하여 이를 지어졌으며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이름지어진 편리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일 현재 새주소의 활용도는 2%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구주소'와 '새주소'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

새주소 제도의 전면적 시행 시기가 멀지 않아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지켜졌으면 한다.

첫째, 새주소 제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구주소는 지적도상에도 없는 지번의 숫자가 버젓이 주소의 번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집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새주소는 현존하는 건물 위주의 일련번호이기 때문에

無等鼓

이리나사코, 엘렌 노르데그린, 이해원, 김보민, 최진실의 공통점은? 스포츠 스타의 아내나 여자친구라는 점이 다. 차례대로 호날두, 타이거우즈, 안정환, 김남일, 조성민의 아내나 여자친구의 이름이다.

스포츠 스타의 아내나 여자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에 WAGs(Wives And Girlfriends)란 용어가 있다. WAGs는 2002년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축구 중주국답게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스타들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WAGs는 2006년 FIFA 월드컵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됐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영국 스포츠 방송 스카이스포츠가 홈페이지를 통해 32개국 대표 선수와 그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의 외모를 평가하는 컷폴 월드컵을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WAGs의 의미가 확대돼 이젠 스포츠 스타 남성과 연예인 여성 커플

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 1호는 허정무 프로 축구 인턴 감독과 최미나 부부를 꼽을 수 있다. 아-최 커플은 2005년에 공개 은혼식(25주년)까지 올릴 정도로 잉꼬 부부로 유명하다.

하지만 불행한 사례도 많다. 야구선수 조성민과 탤런트 최진실 커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네

티즌의 악플에 최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요즘 국내외에서 WAGs 관련 뉴스도 시끄럽다. 국내에서는 유명 야구선수와의 스캔들로 스포츠 채널 여자 아나운서가 투신 자살했고 영국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의 라이언 기스가 불륜에 휩싸였다. wag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의미도 있다. '웍더 독(Wag the dog)'이라고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로 주체가 진도됐을 때 사용한다. 웍더 독이 되지 않도록 스타들의 사생활도 일정 부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